

아동의 대인관계 군집유형과 부모요인간 관계 연구*

천 영 미 우 성 범 김 한 주 강 총 명 양 은 주[†]

초량초등학교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아동의 대인관계 성향에 따른 하위유형을 확인하고, 유형간 부모애착과 부부갈등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부모요인에 따른 아동 대인관계에서의 개인차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66명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이었으며, 부부갈등, 부모애착, 대인관계성향을 측정하는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인관계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군집분석 결과 남아는 관계지향형, 반항형, 갈등적 미분화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여아는 관계주도형, 경쟁형, 회피적 미분화형의 하위유형을 나타냈다. 남아와 관계지향형 및 여아의 관계주도형 집단은 긍정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보였으며, 낮은 부부갈등, 높은 부모애착과 관련이 있었다. 남아의 반항형과 여아의 경쟁형은 갈등적 양상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높은 부부갈등, 낮은 부모애착을 보였다. 한편, 미분화형에서는 남아와 여아 사이에 차이가 두드러졌다. 먼저, 남아의 미분화형이 다른 두 군집과 중복된 양상을 보인 것과 달리 여아의 미분화형은 관계지향형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인관계양상에서도 남아 여아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아는 외현화 된 공격양상을 보인 반면, 여아는 내현화된 회피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군집의 특성에 대한 해석과 함께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아동 대인관계, 부모애착, 부부갈등, 군집분석

* 본 논문은 천영미의 석사학위 논문에 기초함.

* 본 연구의 일부 내용은 2009년 44회 호주 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예정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양은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E-mail : yange@korea.ac.kr

대인관계는 개인의 적응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청소년 상담센터에 내원한 아동과 청소년, 학부모들의 호소 문제를 살펴보면, 매년 대인관계 문제가 전체의 16% - 2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통계청, 2008). 이는 대인관계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반면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대인관계 발달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학업,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Damon, 1983; Hartup, 1982). 아동의 학교생활의 성공적인 적응을 예측하는데 대인관계가 중요한 변인이 되며(Creasey, Ottlinger, Devico, Murray, Harvey, & Hesson-McInnis, 1997), 대인관계는 아동의 학업에 대한 동기와의 밀접한 상관이 있다(Pianta, 1998). 또한 Parker와 Asher(1987)는 아동기 때에 겪는 친구 관계의 어려움은 성인기에 겪게 되는 부적응에 대한 예언력을 지닌다고 제시하였고, Sim과 Vuchinich(1996)는 아동의 또래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그들이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행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동의 대인관계의 발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대인관계를 설명하는 접근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중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향으로 구분하여 대인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데, 이러한 대인관계 성향 분류 방법을 차원적인 접근과 영역에 따른 접근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인관계 성향의 차원적인 모델은 Leary(1955)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이는 Sullivan(1953)이 수유의 불-쾌에 따른 대인관계적인 불안을 경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인관계의 원형을 마련한다는 주장에 영향을 받았다. Leary는 수

평차원인 '우호-냉담'과 수직차원인 '지배-복종'으로 대인관계차원을 분류하고 이를 다시 8개의 차원으로 세분화하였다. 8개 차원은 지배-독재적, 책임감-동정적, 협동적-과도 인습적, 유순함-의존적, 자기말살-피학대적, 반항적-불신적, 공격적-가학대적, 경쟁적-자기도취적이며, 이 차원을 이분화 하여 16가지 성향으로 대인관계를 설명하였다.

이렇게 Leary는 차원으로 대인관계를 설명했다면, Krech(1962)와 그의 동료들은 Schutz(1958)의 소속의 욕구, 통제의 욕구, 애정의 욕구라는 3가지 기본적인 대인관계 욕구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관계 성향, 역할 성향, 표현적 성향으로 구분하며 대인관계를 영역적으로 설명하였다. 각 세 가지 영역은 4개의 하위 영역을 두어 역할성향에는 주도권, 지배, 사회적 출현수범이 사회관계 성향에는 타인의 수용, 사교성, 우호적, 동정적 영역이 있으며, 표현적 성향에는 경쟁적, 공격적, 자의식적, 과시적 영역이 있어 총 12가지 영역으로 대인관계를 설명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대인관계에 대한 차원적인 접근과 영역적인 접근을 통합하여 안범희(1984)는 3가지 영역 안에 7가지 차원으로 대인관계 성향을 설명하면서, 대인관계는 역할 성향, 사회관계 성향, 표현 성향의 3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지배-우월과 복종-자기비하의 차원, 독립-책임감과 의존-무책임의 차원, 동정-수용과 비동정-거부의 차원, 사교-우호와 비사교적-비우호적 차원, 경쟁-공격과 비경쟁적-비공격적 차원, 과시-자기도취와 자기폐쇄-자기의식 차원, 반항-불신과 타협-신뢰적 차원의 7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인관계 성향은 기질 및 환경 등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대인관

계 성향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부모의 영향이다. 부모는 아동의 대인관계 성향 발달에 있어서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모-자녀간의 관계라는 보다 직접적인 경로와 부부관계에서 보여지는 관계양상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아동의 대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애착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Bowlby(1969, 1973)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애착은 영아기의 자녀와 양육자간의 상호작용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고 지속적으로 반응을 하는 양육자는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경우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타인을 그들의 요구에 반응적인 존재로 여기며, 애착을 안전기지로 생각하게 되어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거나 또래와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어려움을 덜 느끼는 반면, 불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을 무능하고 타인을 자신의 요구에 거부적인 존재로 여기며, 탐색하거나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Ainsworth, Behar, Wates, & Wall, 1978; Kerns, 1996).

이러한 애착이 안정적이냐에 따라 아동이 갖는 대인관계에서의 행동이나 태도, 사회적 기술 등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것이 대인관계 성향에도 영향을 준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또래를 수용하는 것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으며(이숙, 정미자, 1995),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또래들로부터 잘 수용되고, 또래관계가 긍정적이었다(Kerns, Klepac, & Cole, 1996).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아동은 사회

적 기술과 또래와의 유능한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능력을 보이며, 조화롭고 협조적으로 행동하여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반면 불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아동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거부당하는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Cohn, Patterson, & Christopoulos, 1991; Goldberg, 1991). 또한 청소년의 경우 애착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정관계 질을 높게 지각하였다(홍주영, 도현심, 2002).

부부갈등 역시 아동의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먼저 부부갈등은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게 하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Cummings, 1985), 아동이 부모가 갈등 상황을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을 모델링하여 또래와의 대립이 생겼을 때 공격적인 행동으로 대처하는 식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Davis & Cumming, 1994; Grych & Finchman, 1990). 또한 부부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부모가 양육에 있어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 자녀의 대인관계가 성숙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부부갈등이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Parke & Ladd, 1992).

아동의 대인관계 발달과 부모의 영향에 있어서 성차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먼저 성차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다른 대인관계 유형이 강화되도록 할 수 있다.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은 강한 애착 성향과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도록 사회화되는 반면 남성은 개별성과 분리를 중요시하며 사회화 된다(Chodorow, 1978; Eagly, 1987; Gilligan, 1982).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회피적인 경향이 강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불안이

강한 모습으로 대인관계 모습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강진경, 정태연, 2001). 부부갈등이나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도 역시 아동의 성차가 보고되어왔다. 부부갈등은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더 큰 불안과 위축을 조성하며(권영옥, 이정덕, 1999),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의 성별의 차이는 없지만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애착과 가족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DeMulder, Denham Schmidt, & Mitchell, 2000).

요약하면,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아동의 대인관계가 부모애착 및 부부 갈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각각의 요인들에 성차가 존재함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동의 대인관계를 우정관계의 질과 같은 단일 개념으로 설명하거나, 특정 차원만을 고려하여 설명하였다. 또 대인관계와 부모 요인들 각각이 아닌 그 관계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성차는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아동의 대인관계성향 발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아동의 다차원적 대인관계성향에 따른 하위유형의 성차를 살펴보고, 하위유형과 부모애착 및 부부 갈등간의 관계가 남아와 여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남아와 여아의 대인관계성향에 따른 하위유형을 비교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차원적 접근과 구분되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대인관계를 영역별로 세분화 한 후 그 안에서 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대인관계 성향을 설명하였는데 이 같은 방법은 통합적인 대인관계의 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과 비교 쌍의 증가로 해석의 간명성이 떨어진다는 제약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대상들을 공

통적인 특성들을 기초로 동질적인 하위 집단을 산출하는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아동의 대인관계성향의 유형을 결정한 후, 이 유형을 중심으로 한 접근을 통해 다양한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남아와 여아에 있어서 부부의 갈등과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가 아동의 대인관계 유형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조사하였고, 이것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대인관계, 부모-자녀간 애착관계, 부부갈등 각각의 요인에 있어서 나타나는 독립적인 성차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제약이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에는 부산시 지역 4개 초등학교의 6학년 아동 266명이 참가하였다. 조사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더 어린 학생은 부부갈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신뢰롭게 보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Grych & Fincham, 1992). 전체 참가자 중 남학생은 134명(50.4%), 여학생은 132명(49.6%)이었다.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남학생 85%, 여학생 81.6%),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못한 경우(남학생 15%, 여학생 18.4%)에 그 이유는 부모의 이혼, 부모 직업상의 이유, 부모의 별거, 한 부모의 사망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수준에 대해서

는 중 혹은 중상으로 지각하고 있는 참가자가 다수(남학생 86.5%, 여학생 87.0%)였다. 반면, 경제수준이 상이라고 보고한 참가자는 남학생 6명(4.4%), 여학생 2명(1.5%)이었으며, 그 외는 경제수준을 중하, 혹은 하로 지각하고 있었다(남학생 5.1%, 여학생 9.0%).

측정도구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Grych(1992)등이 제작한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CPIC)을 권영옥, 이정덕(1997)이 번안하고 타당도를 검

정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CPIC 척도는 9개의 하위척도,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영옥과 이정덕(1997)의 연구에서는 이 중 3문항을 제외한 총 9개 하위척도 48문항을 채택하였고, 다시 타당도 검증을 거쳐 부부갈등의 안정성 차원을 제외한 총 8개의 하위척도 44문항을 채택하였다. 8개의 하위척도는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내용, 지각된 위협, 대처 효율성, 자기비난, 삼각관계이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4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그런 편이다(2점)’, ‘매우 그렇다(1점)’로 되어 있다. 문항에 따라 역방향 채점을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장진아, 신희천(2006)의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의 내적 합치도 신뢰도 계수는(Cronbach α) .92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신뢰도 계수(Cronbach α) 또한 .92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변인	구분	남학생	여학생
		(N=134)	(N=132)
		빈도(%)	빈도(%)
출생순위	첫째	51(38.0)	52(39.3)
	중간형제	3(2.2)	16(12.1)
	막내	63(47.0)	47(35.6)
	외동	17(12.6)	17(12.87)
부모분리	사별	2(1.4)	2(1.5)
	이혼	10(7.4)	16(12.1)
	별거	3(2.2)	3(2.2)
	직업상의 이유	5(3.7)	4(3.0)
	동거	114(85.0)	107(81.6)
경제사정	상	6(4.4)	2(1.5)
	중상	42(31.3)	25(18.9)
	중	74(55.2)	90(68.1)
	중하	(2.9)	12(9.0)
	하	3(2.2)	0(0.0)

부모 애착 척도(IPPA-R)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애착 척도(IPPA;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옥정(1997)이 번안하여 사용한 개정본(IPPA-R)을 사용하였다. IPPA-R은 IPPA와는 달리 부모에 대한 애착을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으로 분리하여 각각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는 각각 25문항으로 문항내용은 동일하며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척도로서 ‘결코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가끔 그렇다(3점)’, ‘자주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로 되어 있으며 부정 문항은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Armsden(1987)의 연구에서 각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아버지 .89, 어머니 .87로 나타났으며, 박정녀, 최해림 (2005)의 연구에서는 부 애착, 모 애착 모두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부모 애착척도 (IPPA-R)의 Cronbach α 는 아버지 .91, 어머니 .89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성향 검사

아동의 대인관계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만철(1992)이 사용한 ‘대인관계성향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안범희(1985)가 여러 학자들(Leary, Krech, Schutz)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제작한 대인관계 성향 검사지를 초등학교의 수준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이 검사는 3개 영역 7개 차원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차원당 5문항이 제시되며 7개의 차원은 각 차원 별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총점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4점 척도로서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가끔 그렇다(2점)’, ‘자주 그렇다(3점)’, ‘항상 그렇다(4점)’로 채점하였다.

이 때 각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지배-우월적 성향, 독립-책임감적 성향, 동정적-수용적 성향, 사교-우호적 성향, 경쟁-공격적 성향, 과시-자기도취적 성향, 반항-불신적 성향”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그 반대의 의미인 “복종-자기비하적 성향, 의존-무책임적 성향, 비동정적-거부적 성향, 비사교적-비우호적 성향, 비경쟁적-비공격적 성향, 자기 폐쇄적-자아 의식적 성향, 타협-신뢰적 성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내용 중 ‘지배적’은 영향력행사, 지시, 충고, 복종요구, 솔선적, 자기주장, ‘우월적’은 독단적, 자만, 지

나친 자존감, 권위적, ‘독립적’은 자기판단적, 독자적 수행, 자립, 자족적, ‘책임적’은 책임의식 철저, 수범적, 과업지향적, 자기권리주장, ‘동정적’은 허용적, 관용적, 민감함, 약자 보호적, ‘수용적’은 타인의 장점 존중, 성심성의, 포용력, ‘사교적’은 개방적, 활동적, 친밀, 소속감, 밀착, ‘우호적’은 낙천적, 온화, 친절, 친애적, 동조적, 협조적, ‘경쟁적’은 간섭 싫어함, 지기 싫어함, ‘공격적’은 비판적, 논쟁적, ‘과시적’은 자기 노출적, 과장적, 전시적, 자기자랑, 흥분 잘함, ‘자기도취적’은 지나치게 낙천적, 도취적, 즉흥적, ‘반항적’은 불평, 불만, 권위에의 도전, 배타적 반대, ‘불신적’은 의심, 경계적, 왜곡, 고립적이다.

신만철(1992)의 연구에서 각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지배-우월적 성향 .60, 독립-책임감적 성향 .61, 동정적-수용적 성향 .73, 사교-우호적 성향 .70, 경쟁-공격적 성향 .70, 과시-자기도취적 성향 .68, 반항-불신적 성향 .6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대인관계 성향척도의 신뢰도는 지배-우월적 성향 .55, 독립-책임감적 성향 .47, 동정적-수용적 성향 .73, 사교-우호적 성향 .50, 경쟁-공격적 성향 .60, 과시-자기도취적 성향 .54, 반항-불신적 성향 .5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신뢰도 지수가 다소 낮게 나온 것은 척도의 문항 수 및 구인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Cronbach α 는 검사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신뢰도 지수로, 문항수가 많고 측정하는 구인이 구체적이고 단순할 때 증가한다(Streiner, 2003). 아동용 대인관계 성향검사의 경우 각 차원 척도의 문항수가 5개로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각 차원척도의 구인 역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포괄적 구인이다. 예를 들어, 지배-우월적 성향 차원의 경우 독단적이라는 부정적 특성과

솔선적이라는 긍정적 특성 모두로 표현될 수 있는 구인이다. 이처럼 문항수가 제한적이고 광범위한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에서는 평균 문항간 상관(mean inter-item correlation)이 .15-.20이상이면 신뢰로운 척도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Clark 과 Watson(1995)의 주장에 따라, 본 척도의 평균 문항 간 상관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7개 성향 차원의 평균 문항 간 상관은 .32-.48로, Clark과 Watson(1995)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은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부모 애착 척도, 대인관계 성향검사, 기본적 개인정보를 묻는 질문들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을 위해 각 학급 담임교사의 동의하에 연구자 혹은 담임교사가 연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연구 참가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가자의 동의를 구하였다. 설문지는 총 306부가 배부되었으며, 그 중 문항의 반 이상을 응답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같은 번호로 계속 응답한 불성실한 질문지 40부를 제외하고 총 266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먼저 대인관계성향, 지각된 부모갈등, 부모 애착에 있어서의 성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인에 대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후, 아동의 전반적인 대인관계 성향과 부부갈등, 부모애착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각각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각각이 대인관계성향에 따라 어떠한 하위집단을 구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은 공통적인 특성들을 기초로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발생적이고 동질적인 하위집단으로 묶이는지를 보여준다(Hair & Black, 2000). 대인관계 유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몇 개의 군집으로 사람들 분류하고 독특한 유형을 이루는 각 집단의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각 유형이 작용하는 방식을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다. 군집분석에 의해 확인된 하위집단에 따른 부모애착과 부부갈등의 차이는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아동의 전반적인 대인관계 성향과 부부갈등, 부모애착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주요 분석에 앞서 부부갈등, 부모애착, 대인관계성향의 남녀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2>). 분석결과, 부부갈등과 부모애착수준에 있어서는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인관계 성향별로는 동정-수용적 성향과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동정-수용적 성향 $F = 4.47, p < .05$; 과시-자기도취적 성향 $F = 10.76, p < .01$).

대인관계 성향에서 나타난 성차를 고려하여, 대인관계 성향과 지각된 부부갈등, 부모애착 간의 상관을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남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모애착과 대인관계 성향의 상관 분석 결과, 부부갈등과 반항-불신적 성향 간

표 2. 남녀에 따른 부부갈등, 부모 애착, 대인관계 성향의 평균 및 표준편차 차이검증

	남자		여자		F (df:263)	
	N	M (SD)	N	M (SD)		
부부갈등	112	88.67 (17.38)	120	88.51 (20.47)	.01	
부모 애착	부 애착	120	91.87 (17.12)	122	92.25 (16.76)	.03
	모 애착	118	93.94 (15.13)	124	96.67 (14.27)	2.07
대인관계 성향	1	131	9.84 (2.60)	131	9.76 (2.47)	.62
	2	134	12.62 (2.54)	131	12.72 (2.76)	.07
	3	131	11.45 (3.15)	131	12.27 (3.05)	4.47*
	4	132	13.45 (2.68)	132	13.92 (2.52)	2.08
	5	133	11.90 (2.99)	131	12.36 (3.14)	1.41
	6	133	10.34 (2.65)	130	11.45 (2.79)	10.76**
	7	132	10.90 (2.58)	129	10.62 (2.42)	.87

** $p < .01$, * $p < .05$

주. 1. 지배-우월적 성향 2. 독립-책임감 성향 3. 동정-수용적 성향 4. 사교-우호적 성향 5. 경쟁-공격적 성향 6. 과시-자기도취 성향 7. 반항-불신적 성향.

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며($r = .31, p < .01$), 반면 부모애착은 독립-책임감적 성향($r = .27, p < .01$), 동정-수용적 성향($r = .27, p < .01$), 사교-우호적 성향($r = .37, p < .01$), 과시-자기도취적 성향($r = .34, p < .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모애착과 대인관계 성향 간 관계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부부갈등과 독립-책임감적 성향($r = -.35, p < .01$), 동정-수용적 성향($r = -.26, p < .01$), 사교-우호적 성향($r = -.29, p < .01$), 과시-자기도취적 성향($r = -.24, p < .01$)간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부모애착은 독립-책임감적 성향($r = .42, p < .01$), 동정-수용적 성향($r = .33, p < .01$), 사교-우호적 성향($r = .35, p < .01$), 과시-자기도취적 성향($r = .28, p$

$<.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부모애착을 높게 지각할수록 위의 성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을 바탕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각각의 경우를 비교해 본 결과, 남학생은 부부갈등이 지배-우월적 성향과 사교-우호적 성향, 반항-불신적 성향과 상관이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독립-책임감 성향, 동정-수용적 성향, 사교-우호적 성향, 과시-자기도취적 성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애착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 독립-책임감 성향, 동정-수용적 성향, 사교-우호적 성향, 과시-자기도취 성향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 부모애착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인관계

표 3. 부부 갈등, 부모애착, 대인관계 성향의 상관관계 (N=266)

	부부갈등		부모애착		
	남	여	남	여	
대인 관계 성향	지배-우월적 성향	.18*	-.16	.13	.13
	독립-책임감 성향	-.09	-.35**	.27*	.42**
	동정-수용적 성향	.09	-.26**	.27**	.33**
	사교-우호적 성향	-.20*	-.29**	.37**	.35**
	경쟁-공격적 성향	.17	-.11	.13	.16
	과시-자기도취 성향	.10	-.24**	.34**	.28**
	반항-불신적 성향	.31**	.03	-.19	-.05

** $p < .01$, * $p < .05$

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형의 조합에 따라 몇 개의 하위 집단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위계적 군집분석인 Wards 방법과 비 위계적인 군집분석인 K-means 방법을 연이어 실시하는 방식으로,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만을 사용할 때 이탈 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장점이 있다.

대인관계 유형인 7가지 변인들의 표준점수를 투입하여 위계적 군집분석(Wards method, Squared Euclidean distances)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계수의 변화를 검토하였을 때 2-5개의 모두 의미 있는 파형이 나타났으나, 해석가능성을 고려할 때 3개의 군집 해법이 가장 적절하였다. 이에 따라 군집 수를 정한 후, 처음 생성된 군집들의 평균 점수를 초기중심점으로 투입한 K-means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사례들의 소속군집을 제시하

였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군집 1은 38명(전체의 30%) (군집 2)는 39명(전체의 31%), 군집 3은 46명(전체의 37%)으로 구성되었다. 군집특성을 파악하여 군집 명을 정하기 위하여, 군집 별로 대인관계 유형들이 조합된 형태를 검토하였다. 군집 1은 반항-불신적 성향이 높고 나머지 대인관계 성향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반항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지배-우월성 성향, 경쟁-공격적 성향, 반항-불신적 성향은 낮고 동정-수용적 성향, 사교-우호적 성향, 은 높은 ‘관계지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전체적인 대인관계 성향이 모두 평균보다 높고 그 중 지배-우월성 성향이 가장 높으므로 ‘갈등적 미분화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반항형 집단(군집 1)과 관계지향형 집단(군집 2)과 갈등적 미분화형 집단(군집 3)은 군집 변인들 간의 점수에서 대조적인 프로파일을 보였다. 각 군집 형태는 <표 4>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여학생 또한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군집화

표 4. 남학생의 최종 군집별 중심점 (N=123)

	군집 1 반향형	군집 2 관계지향형	군집 3 갈등적 미분화형
지배-우월성 성향	-.48	-.55	.96
독립-책임감 성향	-.54	-.15	.50
동정-수용적 성향	-1.10	.16	.57
사교-우호적 성향	-.96	.16	.47
경쟁-공격적 성향	-.44	-.52	.60
과시-자기도취 성향	-.94	-.31	.57
반향-불신적 성향	.31	-.76	.68
군집크기	38	39	46

주. 군집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 $M = 0, SD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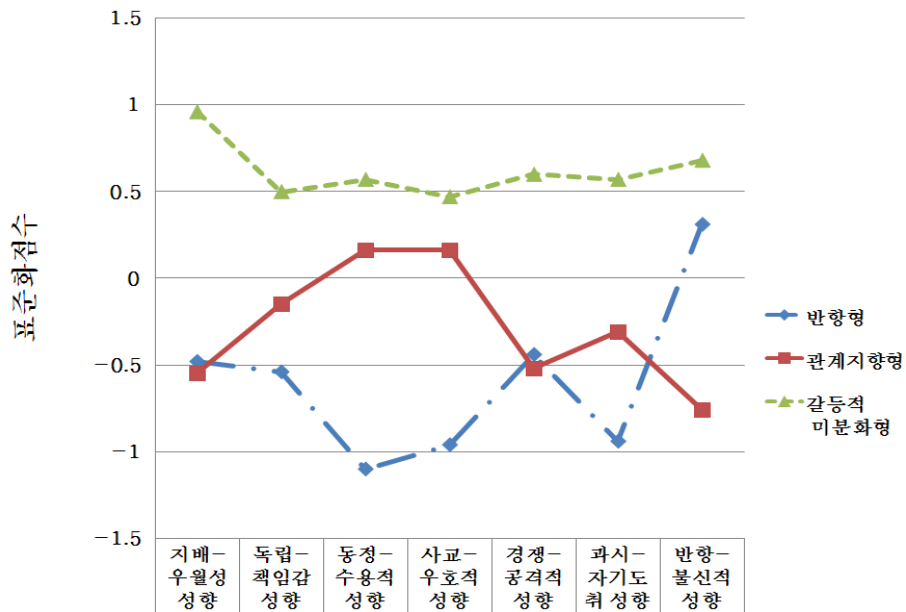


그림 1. 남학생의 군집 프로파일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계수의 변화를 검토하였을 때 3개 군집이 가장 적절하였다. <표 6>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군집 1은 61명(전체의 50%) 군집 2는 45명(전체의 36%),

군집 3은 17명(전체의 14%)으로 구성되었다. 군집 1은 모든 대인관계 성향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회피적 미분화형'으로 명명하였고 군집 2는 경쟁-공격적 성향, 과시-자기도

표 5. 여학생의 최종 군집별 중심점 (N=123)

	군집 1 회피적 미분화형	군집 2 경쟁형	군집 3 관계주도형
지배-우월성 성향	-.64	.46	.84
독립-책임감 성향	-.54	.17	1.41
동정-수용적 성향	-.35	.10	1.74
사교-우호적 성향	-.43	.27	1.20
경쟁-공격적 성향	-.59	.69	.80
과시-자기도취 성향	-.45	.65	1.27
반항-불신적 성향	-.52	.54	.12
군집크기	61	45	17

주. 군집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 $M = 0, SD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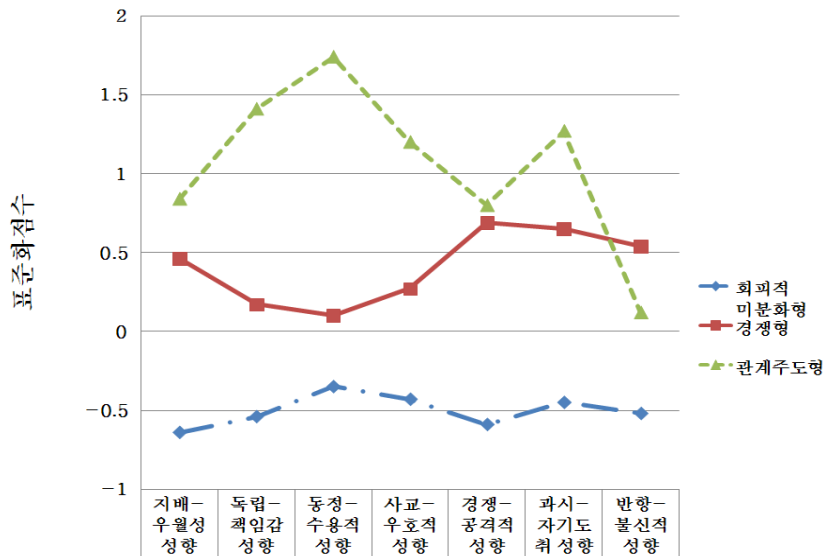


그림 2. 여학생의 군집 프로파일

취 성향, 반항-불신적 성향이 높고 다른 유형은 평균수준인 집단으로 '경쟁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전체적인 대인관계 성향이 모두 높고 그중독립-책임감 성향, 동정-수용적 성향이 가장 높으므로 '관계주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회피적 미분화형 집단(군집 1)과 경쟁형 집단과 관계주도형 집단은 군집변인들 간의 점수에서 대조적인 프로파일을 보였다. 각 군집 형태는 <표 5>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지배-우월성 성향, 독립-책임감 성향, 동정-수용적 성향, 사고-우호적 성향, 경쟁-공격적 성향, 과시-자기도취 성향, 반항 불신적 성향의 차원들로 조합된 각 군집들이 부모애착과 부부갈등 면에서 차이가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MANOVA를 실시하였다. 세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부모애착과 부부갈등을 종속변인으로 두었다. Box의 동일성 검정 결과 남녀 학생 모두 집단의 공분산 행렬의 동질성

가정을 만족시켰다.

남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MANOVA 분석 결과, 부모애착과 부부갈등은 세 하위유형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4,176) = 3.620, p < .01 \text{ 부분}\eta^2 = .076]$. 후속된 분산분석(ANOVA) 결과, 부모애착 및 부부갈등 모두 하위유형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Scheffe 사후검증결과의 양상은 부모애착과 부부갈등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애착의 경우, 반항형 집단이 가장 낮았고 관계지향형 집단과 갈등적 미분화형은 동질적인 것

표 6. 남학생 군집별 부부갈등과 부모애착

	반항형 N=38	관계지향형 N=39	갈등적 미분화형 N=46	F(2, 102)	사후검증
부부갈등	92.71 ^a (SD=15.73)	80.86 ^b (SD=13.99)	92.90 ^a (SD=19.11)	6.089**	2 < 1,3
부모애착	172.23 ^b (SD=34.17)	192.87 ^a (SD=26.90)	190.61 ^a (SD=29.86)	4.627**	1 < 2,3

** $p < .01$, * $p < .05$

주. 사후검정은 Scheffe 방법을 사용하여 유의한 결과만 부등호로 제시하였음($p < .05$).

1 = 반항형 집단, 2 = 관계지향형 집단, 3 = 갈등적 미분화형 집단.

같은 알파벳 기호는 동질적인 집단을 나타냄.

표 7. 여학생 군집별 부부갈등과 부모애착

	회피적 미분화형 N=61	경쟁형 N=45	관계주도형 N=17	F(2, 110)	사후검증
부부갈등	92.52 ^a (SD=18.07)	88.51 ^a (SD=21.05)	72.21 ^b (SD=20.56)	6.648**	3 < 1, 2
부모애착	181.77 ^a (SD=28.06)	189.53 ^a (SD=28.02)	212.87 ^b (SD=20.93)	7.776**	1.2 < 3

** $p < .01$, * $p < .05$

주. 사후검정은 Scheffe 방법을 사용하여 유의한 결과만 부등호로 제시하였음($p < .05$).

1 = 회피적 미분화형 집단, 2 = 경쟁형 집단, 3 = 관계주도형 집단.

같은 알파벳 기호는 동질적인 집단을 나타냄.

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의 경우 관계지향형이 가장 낮았고 반항형 집단과 갈등적 미분화형 집단은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참조).

여학생 집단의 MANOVA 분석 결과에서도 하위군집에 따라 부모애착과 부부갈등은 세 하위유형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4,204) = 3.977, p < .01$ 부분 $\eta^2 = .072$]. 후속된 분산분석(ANOVA) 결과, 부모애착 및 부부갈등 모두 하위유형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Scheffe 사후검증결과 부모애착과 부부갈등의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부모애착 정도는 관계주도형 집단이 가장 높았고 경쟁형 집단과 회피적 미분화형 집단은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갈등의 정도 또한 관계주도형 집단이 가장 낮았고 경쟁형 집단과 회피적 미분화형 집단은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남녀 아동의 대인관계 양상을 군집유형간 분석을 통해 구분해 보았고, 각 군집에 따라 지각된 부부갈등과 부모애착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녀 아동의 대인관계양상을 군집으로 나누어 분석해본 결과, 각각 3개의 군집이 유효하였다. 남아의 경우 세 가지 군집 패턴을 관계지향형, 반항형, 갈등적 미분화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관계지향형은 긴장된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는 지배-우월, 경쟁-공격, 반항-불신적 성향이 가장 낮고 긍정적 대인관

계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동정-수용, 사교-우호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관계지향형 집단은 세 집단 중에서 가장 관계 지향적이고 긍정적 사회성을 지닌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 집단 중 지배-우월 성향과 경쟁-공격 성향이 가장 낮다는 점은 한편, 이 집단이 자기 주장성과 리더십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반항형 집단은 반항-불신적 성향이 높았고 동정-수용과 사교-우호적 성향, 과시-자기도취에서 낮은 표준점수를 보이는 집단이다. 반항형 집단은 세 집단 중 가장 극단적인 프로파일로 보이는 집단으로, 대인관계에서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며 사회적 온정을 느끼지 못하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불신적 성향이 높으며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이 낮다는 점은 또래 집단에 잘 융화되지 못하는 반항형 집단의 속성을 잘 드러내준다. 한편, 갈등적 미분화형은 전체적인 대인관계 성향이 모두 평균보다 높았고 그중 지배-우월성 성향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갈등적 미분화형 집단은 거의 모든 대인관계 패턴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상위에 위치한 미분화된 대인관계 패턴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갈등적 미분화형 집단이 사회적 상황과 대인관계의 맥락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갈등적 미분화 군집의 두드러진 지배-우월성향은 타인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순응적 미분화 양상을 나타내기 보다는 갈등적 양상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아의 경우에는 관계주도형, 경쟁형, 회피적 미분화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관계주도형에서는 반항-불신의 성향을 제외한 대인관계 성향이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관계주도형의 대인관계의 패턴은 매우 극단적인 양상을 나타내는데, 관계 주도적인 대인관계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책임감 성향, 동정-수용적 성향, 사교-우호적 성향이 타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반항-불신 성향, 지배-우월 성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패턴을 나타냈다. 낮은 긴장된 태도와 높은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더불어, 특이할만한 점은 관계주도형의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이 세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양상을 고려해 보았을 때, 관계주도형은 대인관계에서 매우 사교적이며 사회적인 태도를 지니는 동시에 자기만족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해준다. 한편, 경쟁형 군집에서는 경쟁-공격적 성향, 과시-자기도취 성향, 반항-불신적 성향이 높고 다른 유형은 평균인 분포가 나타났다. 그 중 반항-불신적 성향은 세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경쟁형 군집이 사회적 상황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우호적 태도를 보이기보다 대인관계를 경쟁과 대립구도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피적 미분화형에서는 모든 대인관계 성향이 평균보다 낮았으며, 각 대인관계 양상에 차이가 거의 없는 형태를 보였다. 거의 모든 면에서 낮게 보고된 대인관계 양상은 회피적 미분화형 집단의 미분화된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회피적 미분화형 집단은 대인관계 상황을 긴장과 갈등 관계로 인식하거나 우호적으로 인식함이 없이, 거의 모든 상황을 회피하는 위축되고 고립된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후속된 사후검증결과, 남아의 부부갈등은 관계지향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반항형과 갈등적 미분화형 집단은 부부갈등이 높

았으며, 둘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아의 부모애착 정도는 반항형 집단이 가장 낮았고 관계지향형과 갈등적 미분화형이 높았는데, 마찬가지로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아의 경우, 부부갈등의 정도는 관계주도형 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회피적 미분화형 집단과 경쟁형 집단은 갈등에 있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회피적 미분화형 집단과 경쟁형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F 점수 분포를 고려할 때, 회피적 미분화형, 경쟁형, 관계주도형의 순서로 부부갈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애착 정도는 관계주도형 집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쟁형 집단, 회피적 미분화형 집단이 낮은 애착 정도를 나타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아의 관계지향형 집단과 여아의 관계주도형 집단이 가장 관계 지향적 속성을 지니며 각각 낮은 부부갈등과 높은 부모애착을 보인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갈등적 관계 양상을 지니는 반항형 집단과 경쟁형 집단은 높은 부부갈등과 낮은 부모애착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의 대인관계에 대한 부부애착의 긍정적 영향과 부부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시사해준다. 한편, 미분화 유형에서는 남아와 여아 사이의 애착과 갈등 정도에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아의 갈등적 미분화 유형은 애착과 갈등이 동시에 높았으며, 여학생의 회피적 미분화 유형은 애착이 낮고 갈등이 높은 형태를 보였다. 남아의 갈등적 미분화 유형이 갈등적 대인관계 양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긍정적 대인관계 양상 역시 높은 패턴을 보인다는 점은 부모와의 애착이 남아의 긍정적 대인관계 양

상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부갈등과 남녀 아동간의 대인관계 양상을 비교해본 결과, 남아는 부부갈등과 반항-불신적 성향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여아는 부부갈등과 독립-책임감 성향, 동정-수용적 성향, 사교-우호적 성향, 과시-자기도취적 성향과 부적 상관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아동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수동적이고 비협조적이며,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불안한 반응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미숙, 2003)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이는 아동이 부모의 갈등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경우 부모 양자 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모델링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와도 일치했다(Davis & Cumming, 1994; Grych & Fincham, 1990).

한편, 부모애착의 경우에는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주로 독립-책임감 성향, 동정-수용적 성향, 사교-우호적 성향,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애착과 아동의 대인관계의 양상을 보고한 여러 기존 연구(김선주, 2001; 도현심, 1999; 신지영, 2002; 윤소영, 2000; 최경호, 2006; 홍주영, 2002)들과 일맥상통했다.

이러한 대인관계에서의 차이는 Bowlby(1969, 1973)의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해볼 수 있다. Bowlby에 따르면 대인관계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내적 작업 모형의 발달은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을 기반으로 든다고 한다.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주로 긍정적 내적 작업 모형을 발달시키고, 또래와 긍정적인 상

호작용을 하게 된다. 반면, 불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또래와의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상호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적 미분화형과 회피적 미분화형과의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남아군집과 여아군집에서의 차이가 드러났다. 남아의 갈등적 미분화형은 갈등과 애착에서 모두 상위에 위치했는데, 갈등에서는 반항형과 동질성을 나타냈으며, 애착에서는 관계지향형과 그 속성을 공유하는 중복된 양상이 나타났다. 반면, 여아의 회피적 미분화형의 경우에는 갈등과 애착 두 영역 모두에서 관계주도형과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여아에서 갈등과 애착의 영향이 보다 일관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 아동의 이러한 차이는 갈등에 더 예민한 여아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대인관계 양상과 부부갈등을 비교해본 결과 여아의 경우에 부부갈등이 대인관계 성향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의 경우에는 부부갈등에 의한 영향이 여아만큼 뚜렷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부부갈등이 남아보다 여아에 더 큰 불안과 위축을 조성한다는 기존의 연구(권영옥, 이정덕, 1999)와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대인관계 양상에서 남아 군집의 갈등적 미분화형과 여아 군집의 회피적 미분화형의 경우에는, 다른 군집에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먼저, 남아집단의 갈등적 미분화형은 거의 모든 대인관계 양상에서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한편, 여아집단의 회피적 미분화형 역시 대인관계 표준점수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미분화 성향이 나타났다. 남아와 다르게 점수는 모두 평균 하위에 분포하였다. 남아의 미분화 집단인 갈

등적 미분화형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속성은 지배-우월의 성향이었다. 여아의 대인관계 속성에서는 지배-우월과 경쟁-공격의 성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아의 대인관계 점수가 평균보다 상위에 분포하며 그중 지배-우월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갈등적 미분화형은 대인관계의 미분화 상황에서 관계를 갈등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아의 미분화 집단인 회피적 미분화형은 갈등적 미분화형과 반대로 거의 모든 점수에서 낮은 분포를 보였고, 갈등적 관계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우월과 경쟁-공격의 속성이 낮은 분포를 보였다. 미분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 양상의 차이는 부부 갈등과 남녀 아동의 대인관계 차이를 설명하는 차별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Grych & Fincham, 1990). 차별반응 이론에서는 부부 갈등에 대한 남아와 여아의 반응 방식은 다르다고 설명한다. 남이는 주로 분노와 공격 등의 외현화 증상으로 심적 고통을 표출하며 여아는 공포나 불쾌감 등의 내현화 증상으로 내부의 고통을 표출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갈등적 미분화형 남아의 높은 점수 분포와 지배-우월의 성향의 상승은 고통을 외현화 하는 남아의 특성을 반영하며, 회피적 미분화형 여아의 낮은 점수 분포와 낮은 지배-우월의 성향은 내면의 고통을 내현화하는 여아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일 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부갈등은 부모애착과 부정적 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었고, 갈등과 애착의 요소는 남녀 아동의 각기 다른 대인관계 양상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인관계양상을 군집 간 패턴으로 나누어 남녀 간 대인관계양상의 차이와 그에 따른 부부갈등과 부모애착의 차이를 동시해

고찰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대인관계와 더불어 부모와의 애착과 부부 갈등이 아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아동의 대인관계를 단순히 아동 자체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에 더해 가정에서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를 고려해볼 때, 학교장면에 종사하는 교사나 상담자는 아동에 대한 단일한 분석보다 보다는 아동의 대인관계 패턴을 가정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대인관계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인을 서로 개별적인 요인으로 파악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하나의 패턴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학교 장면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대인관계특성에만 집중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일례로 반항-불신적 성향이 높더라도, 동시에 다른 긍정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함께 가진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개입할 때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패턴적, 종합적 접근은 보다 아동 대인관계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대인관계양식의 차이를 고찰해 봄으로써 아동의 관계방식에서의 성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사와 상담자는 아동 대인관계패턴의 차이와 성차를 고려하여 남녀 아동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 논문은 아동의 대인관계를 둘러싼 여러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그것을 하나의 맥락으로 파악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은 부산시 소재 4개 초등학교의 6학년 아동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전체 아동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표집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모두 아동의 자기보고식 평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갈등 상황을 아동의 자기 보고에 의존했는데 이 때문에 아동의 평정은 부모가 지각한 실제 부부갈등의 정도와는 서로 맥락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부모 보고식 평정과 아동의 자기보고식 평정을 동시에 비교한다면 아동의 지각 차이에 있어서 보다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대인관계 양상을 서로 다른 군집 유형으로 구분해보았으나 각 군집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군집을 아동의 대인관계 양상을 중심으로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보았으나 유용한 군집의 수를 가르는 기준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소지가 있다. 각각의 군집이 성인의 대인관계 패턴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해 본다면 발달적으로 보다 일반화 가능한 군집 유형간 분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동 대인관계 패턴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진경, 정태연 (2001). 사랑에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개인적 및 관계적 특성에서의 차이: 남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1), 1-21.

권영옥, 이정덕 (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1(1), 133-155.

김미숙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선주 (2001). 부모와의 분리경험과 애착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친구관계, 우울, 외로움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도현심 (1999).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33-49.

신지영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 애착수준, 유능감 수준 및 교우관계의 질적 특성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안범희 (1985).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윤소영 (2000).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의 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숙, 정미자 (1995). 아동의 또래 수용도 및 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3(2), 103-112.

최경호 (2006).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대인표현 성향 및 부모의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주영 (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주영, 도현심 (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25-136.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 청소년 통계. <http://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12784>에서 2009, 3, 18 인출.
- Ainsworth, M., Blehar, M.,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NJ: Hillsdale.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London: Hogarth.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London: Hogarth.
- Chodorow, N. (1999).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hn, D., Patterson, C., & Christopoulos, C. (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3), 315-346.
- Creasey, G., Ottlinger, K., Devico, K., Murray, T., Harvey, A., & Hesson-McInnis, M. (1997). Children's affective responses, cognitive appraisals, and coping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negative affect of parents and peer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7(1), 39-56.
- Cummings, E. (1985). Influence of Conflict between adults on the emotions and aggression of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1(3), 495-507.
- Damon, W. (1983).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fancy through adolescence*. NY: Norton.
- Davies, P., & Cummings, E.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eMulder, E., Denham, S., Schmidt, M., & Mitchell, J. (2000). Q-sort assessment of attachment security during the preschool years: links from home to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6(2), 274-282.
- Eagly, A.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NJ: Lawrence Erlbaum..
- Gilligan, C. (1993).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dberg, S. (1991). Recent developme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6, 393-400.
- Grych, J., & Fincham, F.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2), 267-290.
- Grych, J., & Fincham, F. (2001). *Interpersonal conflict and child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tup, W. (1983). Peer relations. In P. J. Mussen (Series Ed.) & E. 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 103-196). NY: Wiley.
- Hair, J., & Black, W.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erns, K. (1996). Individual differences in friendship quality: Links to child-mother attachment.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 childhood and adolescence*, 137-157.
- Kerns, K., Klepac, L., & Cole, A.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 457-466.
- Krech, D., Crutchfield, R., Ballachey, E. (1962). *Individual in society: A textbook of social psychology*. NY: McGraw-Hill.
- Leary (1955). Interpersonal diagnosis: some problems of methodology and valid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50(1), 110-124.
- Parker, J. and S. Ashe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ianta, R. C. (1998). Applying the concept of resilience in schools: Cautions from a developmental systems perspective. *School Psychology Review*, 27, 407 - 428.
- Sim, H. and S. Vuchinich (1996). The declining effects of family stressors on antisocial behavior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408-427
- Sullivan, H. S. (1953). *The international theory of psychiatry*. NY: W. W. Horton.
- 원고접수일 : 2009. 5. 29.
게재결정일 : 2009. 7. 31.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interpersonal types and parental factors

Young-Mi Chun Sung-Bum Woo Hanjoo Kim Chong-Myung Kang Eunjoo Yang

Cho-Ryang
Elementary School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er relationship patterns of male and female children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parental attachment and interparental conflicts. Participants were 266 children attending elementary school. They were asked to complet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CPIC),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 and Children's Interpersonal Pattern Scale. Cluster analyses yielded three clusters for each male and female groups based on interpersonal patterns. With male children, the result indicated three clusters defined as intimate, hostile, and undifferentiated-conflicting. Female children were also categorized into three clusters named as proactive, competitive, and undifferentiated-avoidant. The MANOVA and post-hoc test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parental attachment and interparental conflicts among the three cluster groups.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male intimate and female proactive groups reported lower interparental conflicts and greater parental attachment than the other two groups. In contrast, the hostile group for boys and the competitive group for girls showed the greatest interparental conflicts and the lowest parental attachment.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al factors for the undifferentiated groups differed across gender. The female undifferentiated group showed lower parental attachment and greater interparental conflicts, similar to the competitive group. However, the male undifferentiated group showed greater parental attachment and greater interparental conflicts. The male and female undifferentiated groups were also distinctive from each other, in that the male undifferentiated group showed externalizing and offensive attitude toward the peers, but the female group displayed internalizing and avoidant interpersonal patter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ldren interpersonal pattern, interparental conflict, parental attachment, cluster type